

Q방법을 적용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 분석*

김 주 현

이 지 연†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다. 현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에 대한 이론이 없고 양적 통계가 불가능한 표집수의 한계가 있어, 가설추론 방식인 Q방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발달 유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32명을 심층 면담하여 전문가 발달 경험에 대한 자아참조적 진술문 338개의 Q모집단을 구축하였고, 최종 43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P표본은 면담에 참여한 32명의 전문가이며, 소팅 결과는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사이코드라마 실연 입문기’, ‘실존 만남 수련기’, ‘실연 기법 확장기’, ‘정체성 성찰기’, ‘자기통합 숙련기’로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끝으로 각 유형의 특징과 의미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 Q방법론

* 본 연구는 김주현(2019)의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수준 유형과 수퍼비전 요구분석’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지연,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Tel: 032-835-8176, E-mail: becoming@inu.ac.kr

상담자는 단순히 표준화된 상담 내용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상담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변화에 기여하는 독립적이고 중요한 존재로서(이문희, 2011), 상담자 자체가 상담 성과에 중요한 요소이다(Huppert et al, 2001; Wampold, 2001). 이러한 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담학 초기부터 지금까지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이론과 체계 그리고 상담자 발달을 위한 교육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이유이다. 즉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상담자를 좀더 '좋은 상담자'로 성장시켜 상담에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이미정, 박승민, 2015) 노력의 일환으로 상담자 발달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 변인 연구(김영근, 2013;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박수영, 최한나, 2013; 임전옥, 장성숙, 2015) 및 상담자 발달(김계현, 1992; 김민정, 조화진, 2015; 김진숙, 2001; 심홍섭, 1998, 최한나, 2005; Hogan, 1964;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Skovholt & Rønnestad, 1992, Stoltenberg, 1981, Stoltenberg & Delworth, 1987), 발달적 요소와 성장을 돕는 수련과 슈퍼비전 교육 내용 연구를 비롯하여 상담 성과와의 관계(김진숙, 2001; 나현미, 정남운, 2016; 심홍섭, 1998; 유다솜, 2017; 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장재홍, 권희경, 2002, 최한나, 김창대, 2008; Smith & Koltz, 2015)등 상담자 발달에 대한 직간접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최근 상담자 발달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상담자를 발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적용에 있어 상담자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그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정문주, 조한익, 2016) 효과적인 슈퍼비전과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요인 탐

색에까지 이르렀다(소수연, 2012; 장세미, 2016; Ellis, 2001; Grant & Schofield, 2012). 그러나 이러한 축적된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대부분 언어 중심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전문성 수준의 측정은 회기 안에 사용되는 상담자 언어 반응들을 기반으로 살필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심홍섭(1998)의 상담자 발달 단계 척도를 보면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준거개념 중 상담대화기술과 같은 하위 항목이 구성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들은 행위 중심의 접근 기술을 사용해 회기를 이끌어 간다.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들은 담화 방식으로 회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양되며 내담자와의 만남 자체가 행위, 역할 연기 등과 같은 행위 접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평가 척도나 발달 기준을 적용할 때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실제적 역량 측정에 큰 한계를 가지며,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과 슈퍼비전 수행의 교육내용 선정에도 불완전함을 야기한다.

사이코드라마는 행위와 정서, 과정과 리더 중심의 집단 심리 치료이다(Frey, 1972). Moreno(1977)는 사이코드라마가 자신의 실제 생활, 좌절된 상황, 자기실현의 소망 등 모든 문제를 연기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활동을 회복하여 행위 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고 하였다. 사이코드라마는 언어 상담이나 다른 예술치료 분야와 차별화된 사이코드라마의 고유한 치유 방식이 있으며,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능력이 전문가에게 요구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성 요소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실연 역량은 어떻게 발달하며 전문가의 발

달 수준과 사이코드라마 구현은 어떤 관계인지 등 사이코드라마 분야에서 전문가 변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또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는 타 분야의 상담자 발달 관련 연구 결과를 어디까지 타당한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그 비교 기준조차 불명확하다. 그나마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전문가 발달을 조력하는 사이코드라마 슈퍼비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있다. Tabib(2017)는 효과적인 사이코드라마 슈퍼비전 연구에서 숙련 슈퍼바이저의 시각을 통해 슈퍼바이저의 다면적 역할을 근거이론으로 조명하였다. Weiß(2007)는 고급 훈련 집단과 집단 바깥의 소위 실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슈퍼비전 모델을 소개하면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훈련 집단을 훈련 기간에 따라 나누어 실재를 적용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Scholl과 Smith-Adcock(2007)는 집단 슈퍼비전에서 Loganbill 등(1982)의 모델에 근거하여 상담자의 정체성 발달을 높이기 위해 사이코드라마 기술을 사용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Baakman(2002)은 슈퍼바이저의 발달 수준, 존중, 상호성의 관계, 적절한 워업, 스스로 배움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자극 등 슈퍼비전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발달 수준에 이른 대상이거나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를 훈련 기간으로 나누어 수련 과정을 소개하며, 상담자 발달을 위해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한 효과 연구, 슈퍼비전 요소에 대한 연구로서 직접적으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적 과정을 밝히는 연구 문헌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이코드라마의 선행 연구 실태는 사이코드라마가 타 학문과 접목되어 활용되고 응용적 관점이나 기법적

장점으로 실제적 개입을 위한 훈련과 사이코드라마 실연이라는 당면 과제에 집중해 온 경향을 보여준다.

현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수는 많지 않다. 국내의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를 배출하는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학회의 경우, 2018년 기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는 총 82명으로 1969년 사이코드라마가 국내에 소개된 이래 사이코드라마의 효과성과 사회적 적용 분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양적 성장이 크지 않다. 이는 사이코드라마가 실연 역량 습득이 쉽지 않고 전문가 입문으로부터 숙련 단계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숙련된 전문가로 발달해 가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 수는 전문가 변인과 관련한 성과 검증은 물론 전문가 발달 척도의 개발과 같은 양적 연구에서 표집수의 한계를 주어 일반화된 검증 연구를 통해 발달 단계 척도나 수행 및 평가에 대한 도구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나마 국내의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질적 연구에서 디렉터의 성장 경험(강희숙 외, 2014)과 디렉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강희숙 외, 2013), 그리고 디렉터의 저항(김상희, 2011) 연구가 이루어져 전문가가 사이코드라마 실연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발달과 관련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성장 경험에서 전문가는 사이코드라마에 매료되어 교육을 받고 사이코드라마 세계에 들어왔으나,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만나 좌절을 겪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강희숙 외, 2014). 또한 전문가의 디렉팅 경험 안에는 디렉팅 방향을 잃거나 주인공의 저항에 어려움을 겪고 비협조적인 집단

원의 태도에 자발성을 상실하는 등의 어려움이 보고된다(강희숙 외, 2013). 김상희(2011)는 사이코드라마에서 디렉터의 성격적 경향, 대인관계 성향, 인간적인 성숙도, 삶에 있어서의 자유로움 정도가 사이코드라마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사이코드라마 진행의 방해 요인으로 디렉터의 실력 부족,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해, 성격 경향, 사이코드라마를 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 경험 부족, 공부와 훈련의 부족, 적절한 지도자 부족 등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사이코드라마가 오랜 기간의 성과 연구로 그 효용성이 증명되었고(고강호, 2017; 고영애, 2002; 김혜경, 이지연, 2016; 김혜련, 2003; 박수병, 2014; 주혜연, 2003), 다양한 사회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가의 양적 질적 성장의 가시적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부응하고 내담자의 복지와 안녕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의 성장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 발달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달해 가며 그 과정에서 겪는 한계와 어려움은 무엇인지, 발달의 방해 요소와 도움 요소 등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경험 전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문가 발달 과정을 조력하는 외부 자원으로서는 수련 과정과 슈퍼비전을 고려한다면 조력 방식에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차와 수준에 적절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의 발달 수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담자가 가진 전문성 수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발달한다. 상담자의 전문성은 그 수준이 발달할수록 경험의 구조가 변화하며, 그

에 따른 상담기술과 능력의 변화도 일어난다. 초보 상담자들은 외적으로 인수된 전문지식에 의존하지만, 숙련된 상담자들은 자신의 내적 기반에 근거한 구성된 지식을 갖는다(Skovolt, 2005). 또한 상담자 발달은 인지뿐 아니라 정서적, 관계적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며, 바람직한 발달은 통합적 발달이다(Jennings & Skovolt, 1999).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또한 일반 상담자 발달과 공통된 현상인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들의 실제적 경험에서 확인된다면, 다학문적 연구 결과들을 선별하고 사이코드라마 분야의 전문가 발달 방안이나 교육 모델 개발 및 슈퍼비전 교육 방식을 마련해 나가는데 좀더 적합하고 효율적 근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고 전문가의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그들의 발달 경험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수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척도 개발이라는 양적 통계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전문가 수를 고려하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수준을 탐색하고 발달 수준별 차이를 반영한 그룹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법으로 Q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Q방법론은 주관성의 과학이며 자기(self)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Brown, 1980). 또한 Q방법은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설을 만드는’, 또는 ‘가설을 발견해 가는’ 가설 추론적 방법이다(이난복, 2011). Q방법을 개발한 Stephenson(1953)의 가설추론 개념은 가설추론을 통해 이론이나 가설을 발견해 내거나 생성하고, 연역은 검증하기 위해 정의와 가설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귀납은 검증함으로써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김홍규, 2008). Q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조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으로 관찰자의 시각이 아닌 피관찰자의 시각으로부터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수용자들의 주관적인 구조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다(김홍규, 2008). 또한 Q의 요인 분석은 다른 요인 분석에서 진술문이 요인으로 묶이는 것과 달리, 분석된 최종 유형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 즉 ‘사람’을 요인으로 분석하여 유형으로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Q는 ‘사람’이 변수이며, Q표본 진술문 간 점수 차는 그 사람에게 진술문들이 갖는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즉 ‘의미성에 있어서 개인 내의 차이’가 된다(김홍규, 1992). 현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제시되지 못한 바, 발달적 변화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는 자아참조적(self-referent) 의견들을 기반으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에 대한 가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발달 수준 별로 연구 참여자를 유형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수준을 측정할 도구가 없는 현 시점에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그룹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Q방법의 활용 가치가 높다. 더불어 후속 연구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수준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Q방법을 통해 유형화 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유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주제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절차

연구 절차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 분석을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통해 Q모집단을 구축 후 전문가 발달 유형의 대표성을 가진 문항들로 Q표본을 선정한다. 선정된 Q표본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가진 P표본에 의해 강제분포(forced distribution) 방법으로 Q소트되어 전문가 발달에 대한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와 심리적 현상에 대한 반응을 얻는다. Q소트된 분류 결과는 분석을 위한 점수로 환산하여 Q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상관계수 행렬표를 바탕으로 공통 요인을 추출,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한 요인 배열이 이루어진다. Q요인 분석은 주 요인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아이겐 값이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김현수, 원유미, 2000).

Q표본의 선정

Q표본의 선정을 위해 먼저 Q모집단을 구축하였다. Q모집단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경험에 대한 자아참조적 진술문으로, 전문가의 발달 현상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경력을 1년 단위 17개 경력,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2급, 1급, 수련감독가 3종의 자격을 모두 포함한 32명의 면담 대상을 선정하였다. 면담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및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면담 내용은 ‘사이코드라

마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여 지금 현재 전문가로서 성장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로 시작하여 문헌 고찰을 통해 상담자 발달 수준 차이를 보이는 ‘자율성-의존성’, ‘동기’, ‘자기-타인지각’, ‘기술습득’(이미션, 2008, 이운주, 김계현, 2002, Borders, 1990, Leach, Stoltenberg, McNeill, & Eichenfield, 1997, Hogan, 1964)과 관련해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성장 경험을 개방형으로 심층 면담하였다. 면담 질문은 지금-현재 전문가로 활동하는 동기,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성장이 필요한 지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한계와 어려움, 변화 과정에서 성장을 알아차렸던 순간과 인식된 변화, 좌절을 극복했던 요소와 방해했던 요소, 변화의 변곡점에서 경험한 정서, 인지, 실제적 기술의 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사이코드라마의 실제적 기술은 사이코드라마 치료 요인(김주현, 2012, 허미경, 2011)을 구현할 수 있는 접근 기술의 성장과 스스로 잘 구현되었다고 인식된 사이코드라마 실연 회기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였다. 면담 시간은 최단 49분부터 최장 122분으로 평균 1인 78분의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고, 553쪽의 전사 자료에서 338개의 모집단을 구축하였다.

Q표본 선정은 비구조화된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Q모집단을 선정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Q진술문을 택하였다. 이는 무작위나 비례적 선정 방법보다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에 대한 맥락을 최대한 이해하며 진술문을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모집단의 진술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장면을 만드는 역량이 부족하다’와 ‘장면을 만드는데 충분한 역량이 있다’와 같은 의미 중복이나 단순한 반대의 진술문을 제거하였다. 또한 ‘사이코드라마를 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 자신을 넣어 훈련하고 있다’와 같이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발달별 차별화를 확인할 수 없는 공통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초급에서 숙련가로 발달해가므로 경력이 적은 순에서 많아지는 사례로 새롭게 발견되는 진술문을 자격급별 20여개로 균형을 맞추었다. Q분석은 진술문의 유목화가 아니라 사람을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수준을 나누는 요인을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수준을 반영한 진술문 평정을 통해 전문가 그룹을 수준별로 유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Q진술문의 모집단에서 Q표본을 선정할 때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과정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나의 철학과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 드라마가 나온다’, ‘가르치고 싶은 욕구로 확장되었다’는 경력이 짧은 전문가에게 발견되지 않는 문항이며 반대로 ‘(현재)나에게는 수퍼바이저가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와 같은 문항은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술문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수준에 대한 가설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이론적 범주를 설정하여 분석하지 않고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경험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자아참조적 진술문은 ‘개별화된 드라마, 드라마 안목과 신념, 주인공에 대한 맥락적 이해 정도, 수퍼바이저 역할 자각, 수퍼비전의 자율과 의존성 정도, 진행 숙련도, 행위화 및 시각화 정도, 훈련 방법, 평가의 자기-타인 초점 정도, 피드백 내용과 수용의 정도, 대처 방법, 창조성, 전문가 정체성, 자기성

장방법, 동료 및 집단 관계, 집단 운영, 자기 확신, 공감력과 접근 타이밍, 슈퍼바이저와의 분리 및 개별화,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철학과 다학문의 통합 정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최종 Q표본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경력 1년의 2급 1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경력 7년의 1급 전문가 1인, 상담심리 교수이며 슈퍼바이저인 1인이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경험에서 초보, 중간, 숙련 경험이 잘 반영된 진술문인지 검토하고 수정을 거쳐 최종 43개를 선정하였다.

P표본의 선정

P표본의 수는 요인을 추출해 요인 간을 비교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기에 일반적으로 20 ~ 30개 수준이며, P표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인에 대해 이미 알려진 특성이다(김홍규, 2008). P표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문가 활동 경력, 활동 지역, 자격급, 성별, 슈퍼비전 경험, 학력 등 전문가 발달 경험을 고려하여 표집된 Q모집단의 면담 대상자와

동일하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자격급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학회 자격 규정에 의한 3종의 자격급을 모두 포함한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가 8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1급 10인, 2급 14인으로 총 32명이다. 지역은 6개 광역시·도로 도제식 수련 과정으로 일부 지역이나 특정 슈퍼바이저의 영향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전문가 경력은 발달 과정의 수준을 탐색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17개 급간으로 1년 ~ 최장 23년 평균 경력 8년 5개월이다. 연령은 31세 ~ 60세로 평균 연령 50세, 성별은 남자 11명, 여자 21명이며 학력 사항은 학사 5명, 석사 18명(박사수료나 박사 과정 8명 포함), 박사 9명이다.

Q분류

Q소팅을 위해 32명의 P표집 대상자에게 Q소팅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진술문 카드, 분류 작업의 편의를 위해 진술문 카드를 놓을 A1크기의 분포표, 소팅결과 기록지 및 소정의 답례품을 우편 발송하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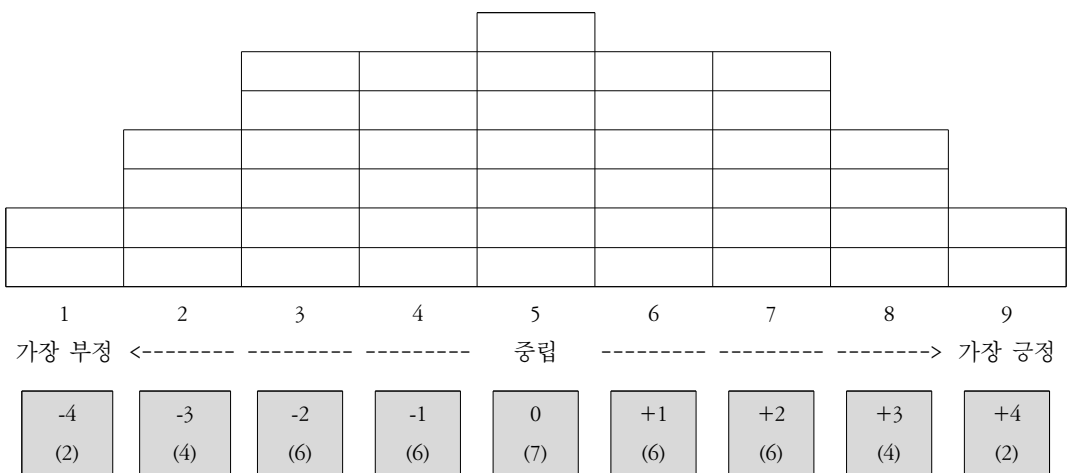


그림 1.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경험에 관한 Q소트 분포도(N=43)

진으로 소팅 결과를 회신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분포도의 양 끝에 위치한 진술문의 의미가 이해되는 경우 외에 좀더 추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는 2차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분류의 절차는 (1)전체 진술문을 읽기 (2)진술문을 읽고 긍정, 중립, 부정 3개 그룹으로 분류 (3)긍정 그룹을 Q소트 분포에 맞게 가장 긍정인 것부터 오른쪽 바깥에서 안으로 배열 (3)부정 그룹을 Q소트 분포에 맞게 가장 부정인 것부터 왼쪽에서 안으로 분류 (4)중립 그룹 분류 (5)전체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것을 수정하는데, 소팅에 사용된 Q소트 분포도는 그림 1과 같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Q소팅 결과는 -4 ~ +4에 놓인 위치에 따라 1점 ~ 9점으로 변환하여 코딩하고 QUAN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Q분류로 부여된 점수를 바탕으로 사람 간 Spearma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대상자 간 계산한 상관계수 행렬표를 바탕으로 공통요인을 추출하며, 이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재구성되어 요인배열이 이루어진다. 각 요인의 조사 대상자들의 요인 가중치가 Spearman의 계산 절차에 의해 산출 후 각 문항마다 표준 점수로 환산하여 Q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를 얻는다. 각 항목의 표준점수의 최대

혹은 최소까지 차례로 강제분포 형태를 적용시켜 정규화하면 요인점수가 얻어지고, 이것이 요인배열행렬로 추출된 Q요인이다(김현수, 원유미, 2000). 가장 적절한 요인 수는 차별화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형 간의 합의 항목(consensus items)이 가장 적은 요인 수를 선택하였다. 요인의 해석은 Q진술문을 기초로 전형성이 큰 진술문 일람표를 만들고 그 진술문에서 내용의 공통성을 검토(양진영, 2005) 하였다(이난복, 2011에서 재인용).

결 과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

Q방법론 설계에 따라 총 43개의 진술문을 32명을 대상으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에 대한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2명의 Q소트를 QUANL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5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Q에서는 유형 간의 변량의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이는 Q의 목적이 설명력을 높이는 데 있기보다 요인의 발견에 있기 때문이다(이난복, 2011). 분석된 5개 유형의 아이겐 값은 표 1과 같으며, 설명 변량은 유형 1이 31.1%, 유형 2가 15.3%, 유형 3은 6.6%, 유형 4는 4.8%, 유

표 1. 5개 유형의 아이겐 값과 변량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아이겐 값	9.935	4.901	2.105	1.522	1.402
변량	.311	.153	.066	.048	.044
누적변량	.302	.464	.529	.577	.621

형 5는 4.4%로 총 62.1%이다.

요인 간의 상관 관계는 계수 r 이 높을수록 상관이 깊고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이다. 유형 1과 유형 2 간의 상관 계수가 $r = -.289$ 로서 알 수 있 수 있듯이, 이 두 유형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유형 2와 유형 3도 $r = -.025$ 로 부적 상관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상관이 높지 않아 유형별 특징을 잘 나누고 있다고 여겨지며 유형간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P표본은 5개의 유형으로 분포되어 유형별 특성을 드러내는데, 그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표본일수록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물이라 할 수 있다. 각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는 표 3과 같다.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별 특징

Q에서 각 유형에 대한 해석 시에는 유형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때 유형에 대한

표 2. 유형간 상관 계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1.000	-.289	.250	.361	.053
유형 2		1.000	-.025	.142	.479
유형 3			1.000	.186	.243
유형 4				1.000	.356
유형 5					1.000

표 3. 유형간 분포와 인자가중치

유형 1 (n=13)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28011	3.256	21021	2.691	31021	1.616	23022	1.403
27013	3.247	04223	2.576	01112	1.552	25011	1.219
08112	2.892	32021	1.870	26012	1.415	20113	1.050
						17111	.855
유형 2 (n=5)		유형 3 (n=5)		유형 4 (n=3)		유형 5 (n=6)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ID	인자가중치
07313	1.297	19113	1.400	22123	2.022	02213	1.761
10223	1.051	13112	.797	09223	.865	05212	.901
14312	.911	24122	.779	12313	.512	16223	.882
29112	.689	06312	.661			18314	.866
30113	.442	11213	.565			15223	.816
						03213	.646

해석은 표준점수가 ± 1.00 이상인 Q표본의 진술문을 대상으로 해석한다. 이 때 표준점수가 높은 것이 그 유형의 특징을 잘 대변하는 것이다. Q표본에서 부정적(-) 진술문은 그 의미의 반대인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 1: 자기통합 숙련기

유형 1은 13명의 전문가로 요인 구성되었다. 구성된 요인의 인적 특성을 보면, 우선 32명의 P표본 중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인 수련감독가 8인이 전원 유형 1로 포함되었다. 또한 수퍼바이저가 아닌 나머지 5인의 전문가들 또한 평균 경력 11.1년으로 현재 수퍼바이저 과정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수퍼바이저 자격 취득과 상관없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실연해 온 전문가이다. 이들은 스스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숙련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타 전문가나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있다 (#1, $z=1.37$).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탄탄한 학문적 기반과(#13, $z=1.15$, #40, $z=1.06$) 실제적 디렉팅 역량을 갖추고(#3, $z=1.35$, #7, $z=1.31$, #2, $z=-1.29$)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만나는데

(#26, $z=1.09$, #22, $z=-1.48$) 유능감을 느낀다. 또한 이들은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연 역량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신의 치유를 통한 실존적 성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10, $z=1.22$).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성장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현장 집단이나 동료 전문가 더 나아가 수퍼바이저와의 부정적 관계 경험을 극복하였고(#11, $z=-1.42$, #36, $z=-1.33$)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져 Moreno의 철학이 담긴 사이코드라마를 구현하고 학문적 성과를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높다(#13, $z=1.15$, #16, $z=1.14$).

이와 같은 특징은 사이코드라마 실연의 실제적 역량이 숙련되고 자기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방식을 가진 사이코드라마 1세대로 현재 수퍼바이저 유무에 큰 영향 없이(#4, $z=-1.50$) 자신의 삶과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통합된 안정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 1의 전문가들은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이론과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인격적 자기(self)로 통합한 숙련가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이 지향하는 전문가 상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의 특징을 담아 유형 1은 ‘자기통합 숙련기’라 명명하였다.

표 4. 유형 1의 Z-score ± 1.00 이상인 진술문

진술문	Z-score
1. 스스로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각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훨씬 깊게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로 확장되었다.	1.37
3. 주인공이 드러낸 말과 스토리 내용에 집중했던 시기를 지나 보이지 않는 언어적 표현이나 신체 감각까지 알아차리는 인식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1.35
7. 내가 하는 디렉팅은 주인공의 행위 갈등과 욕구를 관통하는 맥락이 있다.	1.31
10. 종교, 철학,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등의 다학문적 공부와 영성, 상담, 자기 분석, 주인공 경험을 통해 내 자신의 문제를 많은 부분 극복하였다.	1.22

표 4. 유형 1의 Z-score ±1.00 이상인 진술문 (계속)

진술문	Z-score
13. 모레노의 철학과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식견이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드라마를 연구하고 해체해서 집단과 대담자에 맞는 드라마를 개발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고 싶다.	1.15
16. 나는 주인공의 세계를 풀어내는데 사이코드라마 행위 철학에 기반한 나름의 명확한 접근 의도가 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정신화 능력이 있다.	1.14
21. 사이코드라마를 보거나 시연할 때 디렉터의 스타일과 패턴,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 장면과 형상화 방식, 주인공을 대하면서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실연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인다.	1.14
26. 잘나에 주인공의 심리, 신체, 오감의 감각을 총체적으로 담으면서도 압축된 언어나 행위 만남으로 주인공과 공명할 수 있다.	1.09
40. 상담학, 심리학, 임상학 등의 여러 학문적, 체험적 경험을 사이코드라마로 통섭하여 사이코드라마의 한계나 보완할 점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반영하고 디렉팅을 개선한다.	1.06
6. 디렉팅을 못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디렉팅 과정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는 받아들임을 통해 주인공을 만나는 태도에 여유가 생기고 끝난 후 부족함에 자책을 덜 한다.	1.04
34. 주인공이 호소 문제가 사건과 갈등하는 대상이 없거나 추상적인 주제일 경우에 첫 장면 시작이 어렵고 막막한 기분이 든다.	-1.05
14. 사회 조직과 역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인공과 디렉터가 강렬한 에너지를 쏟으며 만나는 접근을 지양하게 되고 실존적으로 모델링 된 사이코드라마와 현실의 괴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디렉팅 자발성이 감소한다.	-1.07
41. 주인공이 자기 장면을 재연할 때 어떻게 확대 과정을 하여 몰입을 촉진하는 개입을 할 지 어려움을 느낀다.	-1.11
35. 슈퍼바이저의 모순된 모습을 보고 갖게 된 의구심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반대로 직면하기를 오가며 정서적 고통과 해소를 위한 인지 작용으로 소진을 느낀다.	-1.12
19.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 겪는 갈등에서 나의 미해결 과제를 만나나 아직 내가 대처하고 해소 할 수 없다는 감정적 압도를 경험하고 디렉팅에서 병행 재현할 때가 있다.	-1.15
33. 장면에 대한 주제는 인식하나 어떤 보조자를 사용하고 어떻게 역할 교대를 통해 대사를 찾고 몸으로 행위를 하도록 제안 할 지 부족한 생각이 안 나 머뭇거리게 된다.	-1.17
32. 주로 한 슈퍼바이저와의 도제식 배움으로 나의 성장점과 변화 과정을 이해받고 세밀하게 발견되리라는 기대가 있으며 나눔을 더 편하게 하고 있다.	-1.17
2. 다양한 목적지향적 현장 프로그램을 안전성, 윤리성, 목적성,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한 구조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시연하는데 전문적 식견이나 역량이 충분치 않음을 느낀다.	-1.29
38. 디렉팅을 할 때 거의 주인공에게 집중되어 집단을 살필 여력이 없는 편이고 과정 중 생각치 않은 타인의 개입이나 관객의 지루함이 느껴지면 자발성이 떨어지고 진행에 막힘이 생긴다.	-1.30
36. 사이코드라마를 전부로 알고 추구하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 학회나 슈퍼바이저, 동료 전문가들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과 관계 상처로 사이코드라마를 떠나고 싶으나 홀로 건디는 중이다.	-1.33
29. 내가 하고 있는 디렉터 행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1.38
11. 교육 과정에서 온전히 나와 내가 속한 집단만의 슈퍼바이저가 새로운 교육 집단을 만날 때 내가 느낀 애정이 특별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자각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동반하는 정서들을 해소해야하는 발달 과업을 느낀다.	-1.42
22. 주인공의 내면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다.	-1.48
4. 나에게서는 슈퍼바이저가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다.	-1.50

유형 2: 사이코드라마 실연 입문기

유형 2는 지금 현재 사이코드라마의 행위화와 관련한 성장 과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룹이다.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사이코드라마를 시연할 수 있는 디렉팅 역량은 가장 중요한 전문성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가 연극적 방식으로 주인공의 진실을 찾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야기를 장면으로 만들고 행위로 움직이며 풀어내갈 수 있도록 디렉터의 연출 기법들이 필요하다(#42,

$z=2.53$). 그러나 사이코드라마는 가장된 연극이 아닌 주인공의 내면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한 장면 연출과 행위화가 필요한 것으로, 장면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인공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한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가상이 아닌 지금-여기 펼쳐지고 있다고 느끼는 몰입의 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몰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확대와 과장의 촉진 방법을 쓰는데 이러한 여러 행위적 접근에 대해 디렉터로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

표 5. 유형 2의 Z-score ± 1.00 이상인 진술문

진술문	Z-score
42. 행위화와 장면만들기 방법, 주인공을 보호하면서 주인공의 감정을 끌어내어주는 구체적 질문이나 디렉터의 반응법을 손에 잡히게 배우고 싶다.	2.53
22. 주인공의 내면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다.	2.32
41. 주인공이 자기 장면을 재연할 때 어떻게 확대 과장을 하여 몰입을 촉진하는 개입을 할 지 어려움을 느낀다.	1.98
34. 주인공이 호소 문제가 사건과 갈등하는 대상이 없거나 추상적인 주제일 경우에 첫 장면 시작이 어렵고 막막한 기분이 든다.	1.30
33. 장면에 대한 주제는 인식하나 어떤 보조자를 사용하고 어떻게 역할 교대를 통해 대사를 찾고 몸으로 행위를 하도록 제안 할 지 뾰족한 생각이 안 나 머뭇거리게 된다.	1.23
12. 디렉터로서 나의 문제나 삶의 방식이 진짜 드라마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디렉터로서 주인공을 잘 돕기 위한 자기 이해와 수련에 집중하고 있다.	1.10
24.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 없이 내 스스로 직간접 경험에서 드라마 과정을 복기하고 자기 성찰과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일상적 숙고를 통해 성장한다.	1.02
11. 교육 과정에서 온전히 나와 내가 속한 집단만의 수퍼바이저가 새로운 교육 집단을 만날 때 내가 느낀 애정이 특별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자각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동반하는 정서들을 해소해야하는 발달 과업을 느낀다.	-1.16
35. 수퍼바이저의 모순된 모습을 보고 갖게 된 의구심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반대로 직면하기를 오가며 정서적 고통과 해소를 위한 인지 작용으로 소진을 느낀다.	-1.26
30. 진행이 막히거나 맴돌 때 주인공, 디렉터, 관객, 그리고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저항의 요인을 알아차리고 처리할 수 있다.	-1.35
1. 스스로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각과 내가 하는 것 보다 더 훨씬 깊게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로 확장되었다.	-1.85

다(#22, $z=2.32$, #41, $z=1.98$).

유형 2의 가장 전형성을 보이는 전문가(ID-07313, 인자가중치 1.298)는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이제 막 전문가 활동을 시작하는 초보 전문가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이코드라마 실연에 대한 발달 과업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 이들은 사이코드라마 주제가 사건이나 갈등하는 대상이 없는 드라마 실연을 어려워하고 감정이나 실존적 주제와 같은 추상적 주제일 경우 첫 장면 시작도 쉽지 않다(#34, $z=1.30$). 사이코드라마 시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 느끼고 있는데(#30, $z=-1.35$) 이는 기본적인 사이코드라마 실연에 대한 절차적 지식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언어적 표현을 시각화하여 장면으로 만들어 가는데 숙련되지 못한 것이다. 이 유형은 슈퍼바이저나 집단의 동료 전문가들과의 관계 상처나 갈등으로 지금 현재 배워나가는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부류로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성장의 내용과 구체적인 실연 역량 발달에 관심이 있다(#11, $z=-1.16$, #35, -1.26).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전형적인 입문기 수련자(#1, $z=-1.85$)로 유형 2는 '사이코드라마 실연 입문기'라 명명하였다.

유형 3: 정체성 성찰기

유형 3은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목적지향적인 드라마의 안전성, 목적성,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한 디렉팅을 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나(#2, $z=1.94$), 디렉팅을 못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과정의 미숙함을 받아들이고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을 덜 한다(#6, $z=2.16$). 또한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교육 내용이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피드백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 내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동반하는 성장을 보인다(#23, $z=1.78$). 또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실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29, $z=-1.06$, #33, $z=-1.11$, #41, $z=-1.27$, #34, $z=-1.34$), 사이코드라마를 보거나 시연할 때 디렉터의 스타일이나 패턴,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 장면과 형상화 방식, 주인공을 대할 때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는 중견 전문가이다(#21, $z=1.16$).

유형 3의 가장 전형성을 보이는 전문가(ID-19113, 인자가중치 1.400)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유형에 속한 전문가들의 평균 경력은 5.1년이다. 이들은 슈퍼바이저가 신적인 존재에서 내려와 나와 같은 한계와 모순을 지닌 인간으로 보고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받아들이고 있다(#9, $z=1.71$). 진술문 중 자신을 설명하는 우선 순위에서 가장 멀었던 문항은 사이코드라마의 무소불위한 힘을 믿고 열정으로 매진한다(#15, $z=-2.42$)는 것으로 전문가 초기 사이코드라마에 빠져 몰입하던 상태에서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맞게 된 요인에는 관계 상처, 지향하던 사이코드라마의 이상과 실제적 현실의 괴리를 직면하여 자발성이 감소하고 정서적 고통과 전문가 역할에 대한 소진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진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타인의 평가나 인정보다는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보다는 혼자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지금 현재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돌진하기보다 자신을 돌보고 전문가의 정체성, 관계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에 대해 사유하는 성찰기에 있으며 현상적

으로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활동이 축소, 면해있다. 결국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침체되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할지 두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며 그러므로 전문가의 이
 나아갈지에 대한 자기 질문과 삶의 선택에 직 접 타미 가장 많은 시기가 이 때이기도 하다. 이

표 6. 유형 3의 Z-score ± 1.00 이상인 진술문

진술문	Z-score
6. 디렉팅을 못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디렉팅 과정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는 받아들임을 통해 주인공을 만나는 태도에 여유가 생기고 끝난 후 부족함에 자책을 덜 한다.	2.16
2. 다양한 목적지향적 현장 프로그램을 안전성, 윤리성, 목적성,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한 구조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시연하는데 전문적 식견이나 역량이 충분치 않음을 느낀다.	1.94
23. 슈퍼비전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기준이 해야 하는 당위적인 것에서, 내 환경과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것, 내 자발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1.78
12. 디렉터로서 나의 문제나 삶의 방식이 진짜 드라마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디렉터로서 주인공을 잘 돕기 위한 자기 이해와 수련에 집중하고 있다.	1.77
9. 슈퍼바이저가 신적인 존재에서 내려와 나와 같은 한계와 모순을 지닌 한 인간으로 보이고 내 몫의 성장과 발달 과업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중이다.	1.71
21. 사이코드라마를 보거나 시연 할 때 디렉터의 스타일과 패턴,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 장면과 형상화 방식, 주인공을 대하면서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실연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인다.	1.16
29. 내가 하고 있는 디렉터 행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1.06
33. 장면에 대한 주제는 인식하나 어떤 보조자를 사용하고 어떻게 역할 교대를 통해 대사를 찾고 몸으로 행위를 하도록 제안 할 지 뻔족한 생각이 안 나 머뭇거리게 된다.	-1.11
11. 교육 과정에서 온전히 나와 내가 속한 집단만의 슈퍼바이저가 새로운 교육 집단을 만날 때 내가 느낀 애정이 특별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자각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동반하는 정서들을 해소해야 하는 발달 과업을 느낀다.	-1.23
41. 주인공이 자기 장면을 재연할 때 어떻게 확대 과장을 하여 몰입을 촉진하는 개입을 할 지 어려움을 느낀다.	-1.27
34. 주인공이 호소 문제가 사건과 갈등하는 대상이 없거나 추상적인 주제일 경우에 첫 장면 시작이 어렵고 막막한 기분이 든다.	-1.34
1. 스스로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각과 내가 하는 것 보다 더 훨씬 깊게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로 확장되었다.	-1.42
15. 깊은 심연의 만남이 이루어진 강렬한 경험이 사이코드라마의 무소불위한 힘을 향유하고 배우려는 열망을 갖게 해 선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매진중이다.	-2.42

러한 특징으로 유형 3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숙고하고 앞으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자기 철학과 신념을 정립하기 위해 애쓰는 시기의 특징을 담아, 유형 3을 ‘정체성 성찰기’라 명명하였다.

유형 4: 실존 만남 수련기

유형 4는 디렉터 자신의 문제와 삶의 방식이 드라마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주인공을 잘 돕기 위한 자기 이해와 수련에 집중하는 부류이다(#12, $z=2.16$). 사이코드라마 실연 후 드라마 과정을 돌아보고 일상적 숙고를 하며(#24, $z=1.86$),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역할을 끝 나의 실존적 삶으로 연결하여 성장하고자 한다(#31, $z=1.07$). 그러나 유형 4에 속한 전문가는 디렉팅 과정에서 집단을 살필 여력이 없는 초보 전문가와(#38, $z=1.14$) 슈퍼바이저를 모델로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나의 색깔을 살리고 싶어 하는 전문가가 섞여 있다(#39, $z=1.14$). 또 하나의 특징은 모두 주 슈퍼바이저가 있어 주로 도제식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다(#37, $z=-1.34$). 이들은 슈퍼바이저나 집단의 동료 전문가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35, $z=-1.51$, #36, $z=-1.90$)과 부정적 영향(#8, $z=-1.59$)을 모두 받고 있다. 현재 주 슈퍼바이저와의 강한 애착과 동맹 상태로, 슈퍼바이저의 모순된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가질 때 그런 자신을 오히려 닮는 부정행동을 하거나 또는 직면하여 정서적 고통에 이른 경험은 적은 편이다(#35, $z=-1.51$). 반면 집단 동료 전문가들과는 디렉팅 자발성이 촉진되는 것에 오히려 방해받았던 부정적 경험이 있다(#8, $z=-1.5$).

유형 4는 주 슈퍼바이저의 철학적 지향에 동의하며 슈퍼바이저가 보여주는 사이코드라

마를 자신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수련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실존적 존재로서 디렉터 자신의 성장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또한 집단구성원 특히 주인공의 삶을 사이코드라마에서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어 존중하고 수용하는 만남이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구현되기를 추구한다(#14, $z=-1.32$). 이러한 철학적 지향은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만남을 할 수 있는 역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상에서 인격적인 성장과 실존적 역할 확장을 꾀한다. 이러한 인식은 치료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수직적 관점이 아닌 수평적 만남의 방식을 통해 진정성 있는 만남이 가능하도록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자신의 인격 성숙과 일체화 된 삶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을 삶에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유형 4는 주인공과의 만남을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두기보다 전문가 자세에 좀더 높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사이코드라마 실연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 크다(#6, $z=-1.15$). 따라서 유형 4는 Moreno의 실존적 철학에 동의하며 먼저 기법적 전문성 숙달보다 전문가로서 기여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그 과정에 정성을 들이는 데 우선적 가치를 두는 전문가들이다(#31, $z=1.07$, #17, $z=1.10$). 이렇듯 유형 4의 전문가는 실존적 만남을 추구하며 그러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고 수련하는 부류로, 유형 4를 ‘실존 만남 수련기’라 명명하였다.

표 7. 유형 4의 Z-SCORE ±1.00 이상인 진술문

진술문	Z-score
12. 디렉터로서 나의 문제나 삶의 방식이 진짜 드라마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디렉터로서 주인공을 잘 돕기 위한 자기 이해와 수련에 집중하고 있다.	2.16
24. 사이코드라마 슈퍼바이저 없이 내 스스로 직간접 경험에서 드라마 과정을 복기하고 자기 성찰과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일상적 숙고를 통해 성장한다.	1.86
16. 나는 주인공의 세계를 풀어내는데 사이코드라마 행위 철학에 기반한 나름의 명확한 접근 의도가 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정신화 능력이 있다.	1.55
38. 디렉팅을 할 때 거의 주인공에게 집중되어 집단을 살필 여력이 없는 편이고 과정 중 생각치 않은 타인의 개입이나 관객의 지루함이 느껴지면 자발성이 떨어지고 진행에 막힘이 생긴다.	1.14
39. 슈퍼바이저의 말투, 행위, 특징들이 닮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은 모델링하는 모방학습에서 벗어나 나의 색깔을 살리고 싶다는 자각이 생겼다.	1.14
17. 모레노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 개혁 해방에 비전이 있다고 보는 철학에 동의하며 사이코드라마 적용의 여러 변형 형태, 국내외 적용 사례, 활발한 연구 교류에 관심이 높고, 전문가 공동체 학회와 같은 집단 지성이 발현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책임감을 느낀다.	1.10
31.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역할이 나한테는 삶이고 일상의 관계나 일들이 이미 사이코드라마와 연결되어 뺄 수 없는 삶 자체이다.	1.07
29. 내가 하고 있는 디렉터 행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1.06
6. 디렉팅을 못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디렉팅 과정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는 받아들임을 통해 주인공을 만나는 태도에 여유가 생기고 끝난 후 부족함에 자책을 덜 한다.	-1.15
33. 장면에 대한 주제는 인식하나 어떤 보조자를 사용하고 어떻게 역할 교대를 통해 대사를 찾고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제안 할 때 뽀족한 생각이 안 나 머뭇거리게 된다.	-1.17
1. 스스로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각과 내가 하는 것 보다 더 훨씬 깊게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로 확장되었다.	-1.28
34. 주인공이 호소 문제가 사건과 갈등하는 대상이 없거나 추상적인 주제일 경우에 첫 장면 시작이 어렵고 막막한 기분이 든다.	-1.30
14. 사회 조직과 역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인공과 디렉터가 강렬한 에너지를 쏟으며 만나는 접근을 지양하게 되고 실존적으로 모델링 된 사이코드라마와 현실의 괴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디렉팅 자발성이 감소한다.	-1.32
37. 슈퍼바이저를 선택할 때 어디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는다.	-1.34
35. 슈퍼바이저의 모순된 모습을 보고 갖게 된 의구심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반대로 직면하기를 오가며 정서적 고통과 해소를 위한 인지 작용으로 소진을 느낀다.	-1.51
8. 집단에 동료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지고 새로운 디렉팅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응원으로 다가와 디렉팅 자발성을 촉진한다.	-1.59
36. 사이코드라마를 전부로 알고 추구하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 학회나 슈퍼바이저, 동료 전문가들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과 관계 상처로 사이코드라마를 떠나고 싶으나 홀로 건디는 중이다.	-1.90

유형 5: 실연 기법 확장기 효과적인 접근법을 원한다(#42, z=2.38). 또한
 유형 5는 디렉터로서 행위화와 장면 만들기 다양한 목적지향적 현장 프로그램에 대한 관
 방법을 습득하고 주인공을 보호하면서 주인공 심이 높아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목적을 잘
 의 감정을 끌어내는 구체적인 질문, 디렉터의 수행할 수 있으며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기

표 8. 유형 5의 Z-SCORE ±1.00 이상인 진술문

진술문	Z-score
42. 행위화와 장면 만들기 방법, 주인공을 보호하면서 주인공의 감정을 끌어내어주는 구체적 질문이나 디렉터의 반응법을 손에 잡히게 배우고 싶다.	2.38
2. 다양한 목적지향적 현장 프로그램을 안전성, 윤리성, 목적성,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한 구조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시연하는데 전문적 식견이나 역량이 충분치 않음을 느낀다.	1.62
12. 디렉터로서 나의 문제나 삶의 방식이 진짜 드라마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디렉터로서 주인공을 잘 돕기 위한 자기 이해와 수련에 집중하고 있다.	1.37
10. 종교, 철학,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등의 다학문적 공부와 영성, 상담, 자기 분석, 주인공 경험을 통해 내 자신의 문제를 많은 부분 극복하였다.	1.24
22. 주인공의 내면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다.	1.13
18. 슈퍼바이저로서 성장하는데 관심이 있고 슈퍼비전 자체에 궁금증이 생겨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모습을 눈여겨보고 예전에 흘려보냈던 슈퍼바이저 행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있다.	1.00
14. 사회 조직과 역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인공과 디렉터가 강렬한 에너지를 쏟으며 만나는 접근을 지양하게 되고 실존적으로 모델링 된 사이코드라마와 현실의 괴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디렉팅 자발성이 감소한다.	-1.24
27. 강렬한 드라마 경험 후에 감정의 잔재나 잉여의 만남을 연장하는 뒷풀이 문화가 현실과 판타지 세계의 쿠션 역할을 해 주기도 하나 현실과 드라마의 경계와 나를 주인공으로 양육한 디렉터와 현실적 경계를 짓는 슈퍼바이저 모습에 감정적 혼란과 적절한 대처 행동에 모호함을 느낀다.	-1.26
26. 찰나에 주인공의 심리, 신체, 오감의 감각을 총체적으로 담으면서도 압축된 언어나 행위 만남으로 주인공과 공명할 수 있다.	-1.32
5. 사이코드라마를 통해서 뭘 구현하려고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지 나의 철학과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 드라마가 나온다.	-1.60
35. 슈퍼바이저의 모순된 모습을 보고 갖게 된 의구심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반대로 직면하기를 오가며 정서적 고통과 해소를 위한 인지 작용으로 소진을 느낀다.	-1.80
36. 사이코드라마를 전부로 알고 추구하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 학회나 슈퍼바이저, 동료 전문가들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과 관계 상처로 사이코드라마를 떠나고 싶으나 홀로 건디는 중이다.	-2.67

확하고 시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대하며(#2, $z=1.62$) 그 기대만큼 자신의 역량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그러나 유형 5는 종교, 철학,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등 다학문적 공부와 영성, 상담, 자기 분석, 주인공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많은 부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10, $z=1.24$). 또한 슈퍼바이저로서 성장하는데 관심이 있고 슈퍼비전 자체에 궁금증이 생겨 슈퍼비전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18, $z=1.00$), 사이코드라마를 입문한 이후 현장 경험이 있고 좀더 전문적인 실연 기법의 확장으로 전문성이 성장하는데 관심이 높다. 유형 5는 실존적으로 모델링 된 사이코드라마와 현실 괴리에서 방향성을 잃거나 확신이 떨어져 자발성이 감소하는 경험은 크지 않다(#14, $z=-1.24$). 또한 강렬한 드라마 이 후에 현실과 판타지 세계의 쿠션 역할을 하는 뒤풀이 문화나 슈퍼바이저와의 강한 애착으로 겪는 감정적 혼란도 크지 않다(#27, $z=-1.26$). 이러한 특성은 유형 5의 전문가들이 사이코드라마를 좀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회현장에서 사이코드라마의 강점을 활용하고 싶어 시작한 전문가들로, 사이코드라마에 맹목적으로 빠져들기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하는 현장이 있고 효과적인 개입과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뭘 구현하려고 하는지,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지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드러내는 ‘나의 드라마’라는 실존적 가치보다 목적을 가진 접근의 효과성과 전문성에 방점이 있다. 또한 유형 5는 전문가 발달 과정에서 관계 경험이 부정적 경험보다 긍정적 경험을 보고

하고 있다.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고통이나 소진된 경험이 높지 않고(#35, $z=-1.80$), 사이코드라마만을 전부로 추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슈퍼바이저나 동료 전문가들에 대한 인간적 실망이나 관계 상처로 사이코드라마를 멀리하는 경험을 하진 않았다(#36, $z=-2.67$). 따라서 유형 5는 사이코드라마가 지향하는 존재의 실존이나 만남과 같은 가치에 집중하기보다 사이코드라마의 행위적 기법을 좀더 숙련되고 깊이 있게 배워 전문성을 확장하는 시기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유형 5는 ‘실연 기법 확장기’로 명명하였다.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의 변화 단계

상담자는 평생 끊임없는 성장과 발달 과정을 경험하며(Borders & Usher, 1992), 오랜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 상담 장면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전문성을 함양하고(Skovholt & Rønnestad, 1992) 정체성을 확립하여(Ekstein & Wallerstein, 1972) 상담자 개인 성향과 인지 구조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개별화를 이루어가는 것(Skovholt, 2001)이라 하였다(허재경, 신영주, 2015에서 재인용). 좀더 정교하게 제시되고 있는 Skovholt와 Rønnestad(1992)의 8단계 발달 과정으로 본다면 사이코드라마 실연 입문기 유형은 인습적 단계, 전문적 훈련기로 이행 단계가 해당되며, 실존 만남 수련기와 실연 기법 확장기 유형은 대가모방 단계, 조건적 자율성 단계가 혼재되어 있고, 정체성 성찰기 유형에는 탐구 단계와 통합 단계의 특성, 마지막 자기통합 숙련기 유형은 개별화 단계와 개별성 보존 단계의 발달적 특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발달 단계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이 일반 상담자 발달과 유사한 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은 존재의 성장과 함께 행위 정서 중심의 사이코드라마 실연에 대한 실재적 개입 기술의 체화라는 고유한 과업의 차이도 발견된다. 음악치료사의 학위과정 경험을 보면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자원하고 음악에 대한 기초학문 습득을 통한 치료적 기반 마련, 임상을 위한 음악 기술처럼 음악치료의 고유한 발달 과업이 발견되고 실습과 인터셉 과정에 치료 철학에 대한 갈등과 이론과 실제 차이에 대한 혼란을 보이며 슈퍼비전을 받고 개인적 성장과 치료 개입능력, 치료사 정체성 확립과 같은 전문적 성장을 보인다(임지연, 소혜진, 2017).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들 또한 사이코드라마의 매력에 빠져 기본적인 실연 역량을 키우는데 매진하는 입문기에서 좀더 기법적 숙련과 철학적 지향을 좇아 수련하며 성장한다. 입문기를 지나 수련 단계에서 좀더 실존 철학적 지향을 중심으로 수련하는 전문가와 현장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렉팅 기법 확장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나뉘는 특징을 보인다. 정체성 성찰기인 유형 3은 유형 4와 유형 5의 방향을 통합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한다. 치유적 목적과 만남의 과정과 실존을 드러내는 자발적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통해 전문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또한 자기성장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스스로 자기 내적 기준을 정립하여 전문가로서 사이코드라마의 실재나 철학에 대한 자기구성개념을 갖추어 나간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역량을 갖춘 숙련자로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슈퍼바이저의 역할 및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숙련가로 발달한다. 이와 같이 분석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유형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따라서 Q분석을 통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은 인간의 심리 발달처럼 존재의 성장이라는 보편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사이코드라마를 실연할 수 있는 실재적 역량에 있어 발달적 수준차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을 살펴보았다. 43개의 Q표본을 활용하여 32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Q요인 분석을 한 결과 5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다. 유형 1은 자기통합 숙련기, 유형 2는 사이코드라마 실연 입문기, 유형 3은 정체성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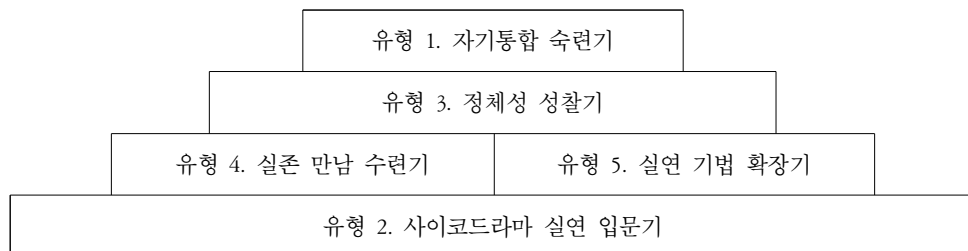


그림 2.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의 변화 단계

기, 유형 4는 실존 만남 수련기, 유형 5는 실연 기법 확장기이다. 분석된 유형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5가지의 유형은 전문가의 발달 수준을 반영하며 나아가야 할 성장의 방향을 보여준다. 5가지 유형은 4단계로 1단계 사이코드라마 실연 입문기, 2단계 실존 만남 수련기와 실연 기법 확장기, 3단계 정체성 성찰기, 4단계 자기통합 숙련기로 나아가며 상담자 발달과 유사한 과정을 겪는다. 상담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개입 방식이나 체험을 위한 매체 선정에 있어 분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상담자의 존재와 인격의 성장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띠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문가 발달에 대한 보편성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선행 연구의 시사점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유형 분석 결과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 사이코드라마 실연의 숙련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철학의 기반 정도, 수퍼비전에서의 역할 차이와 수퍼비전 관계에 있어 의존과 자율성 정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및 자기의 통합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수련자의 발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셋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유형별로 구체적인 발달 과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전문가들은 사이코드라마 실연에 입문하여 전문가

수련을 시작한다. 사이코드라마를 구현하는 역량이 체화되기까지 실존 만남을 중심으로 일상적 수련을 하거나, 다양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실연 기법의 확장을 꾀한다. 이후 관계 상처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직면하면서 사이코드라마와 전문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정체기에 이르러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꾸준한 자기 성찰적 숙고를 통해 전문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self)를 형성하는데 이 때 자기(self)는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실제, 인격적 성장까지 한사람의 통합된 자기(self)로 발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담자의 자기 발달 경험을 연구한 이미정과 박승민(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입문 동기’, ‘성찰적 자기가 발달해감’, ‘연결을 회복해감’, ‘자기분화가 되어감’, ‘상담전문가로 성장해감’이라는 발달 성취와 같이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유형별로 직면할 수 있는 발달적 정체를 인식하고 극복해야하는 과업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모든 유형에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디렉팅 숙련 정도에서 차이를 주는 실제적 실연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가 언어 중심의 상담 기술과 달리 행위와 정서 중심으로 주인공이 드러낸 말과 스토리를 넘어서 비언어적인 표현과 오감의 표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것, 주인공이 행위 갈증과 숨겨진 잉여 현실, 욕구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 주인공의 삶을 공감하는 압축된 언어와 질문, 언어의 시각적 형상화와 장면연출, 저항처리, 몰입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과 포인트 잡기 등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한 체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연 역량에 대한 습득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의 사이코드라마 경험 과정에서 감정정화, 새로운 행위 경험, 행위 몰입, 비언어적 표현의 인식, 행위화, 지금-여기와 같은 중재적 조건과 장면실연, 역할 기법활용, 집단의 친밀감, 보조자의 상호작용, 디렉터의 촉진역할, 디렉터의 저항해결능력과 같은 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회기 안에서 주인공은 'I-God'으로 사는 순간을 경험한다.(김주현, 이지연, 2014). 즉 전문가는 사이코드라마 치료 요인(김주현, 2012; 허미경, 2011)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치료적 메커니즘을 잘 살리는 실연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행위 중심적 사이코드라마의 실연 역량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유형은 사이코드라마 실연 입문기에 있는 전문가 유형으로 이 시기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적합한 실제적 훈련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들이 성장 초점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발달적 경로가 다를 수 있다. 유형 4의 실존 만남 수련기에 있는 전문가 유형은 주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들은 도제식 배움으로 인해 강력한 신뢰 관계 안에서 깊은 배움에 몰입할 수 있으나 반면 분리개별화의 어려움, 강력한 전이 역전이, 타 슈퍼바이저에 대한 배타성, 동료 전문가들과의 관계 갈등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실존적 존재로서 전문가 자신의 인격적 성장에 대한 욕구만큼 구체적 수련 방법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그리고 유형 5의 실연 기법 확장기에 있는 전문가는 실제적 기법에 대한 확장 욕구가 많은 부류로 현장 전문성에 대한 학습 욕구가 크다. 그러나 현재 사이코드라마 슈퍼바이저가 8인으로 소수이며, 다양한 현장과 대상에 대한 이해나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효용성의

검증 등 사이코드라마의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축적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는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복지와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실력으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다학문적인 공부를 통해 주인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가로서의 자기 확신을 필요로 한다.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이코드라마 진행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기 확신을 주고, 전문가의 정신화 능력의 향상과 치유적 과정에 개인적 경험을 넘어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과정에서 성장 방법으로 슈퍼비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슈퍼비전 수행에서 실제적인 역할 차이 또는 역할 기대 현상이 있었다. 유형 1은 타인을 가르치고 싶은 슈퍼바이저 역할 인식을 하고 있으며 개인을 떠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확장된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느낀다. 이는 효과적인 사이코드라마 슈퍼비전 연구에서 숙련 슈퍼바이저들의 시각을 통해 슈퍼바이저로서 임상교육자, 롤 모델, 그룹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다면적 역할을 조명한 Tabib(2017)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나머지 유형은 슈퍼바이저로서 더 배우고 정진하는 역할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역할보다 배우는 역할을 인식하는 2, 3, 4, 5 유형에서 슈퍼바이저에 대한 심리적 의존과 분리에서 발달적 차이를 보인다. Hogan(1964)은 의존-자율성 차원으로 상담자 발달 단계를 슈퍼바이저 의존, 의존-자율성 갈등, 조건적 의존, 대가 상담자로 발달한다고

했다.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도 슈퍼바이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받는 초보 전문가에서 슈퍼바이저를 신적인 존재에서 내려 인간적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타인 초점에서 자신을 주체로서 인식해가는 성장을 보인다. 특히 유형 1의 자기통합 숙련기에 있는 전문가들은 슈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배를 양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배 전문가이다. 이들 또한 슈퍼바이저로서 갖고 있는 책임과 역할, 슈퍼비전을 수행하는 실제에서 슈퍼바이저로서 발달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면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슈퍼비전의 중요성만큼 슈퍼바이저 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저의 발달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의 발달 과정에서는 슈퍼비전을 위한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교육 필요(김동민, 2018)가 확인되며, 소수연(2012)은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에서 슈퍼비전 과정, 슈퍼비전 내용과 전달방식, 슈퍼비전 관계 등을 밝히고 있듯이 사이코드라마 또한 건강한 슈퍼비전 관계 및 슈퍼비전 수행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역량 개발 위한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일곱째, 유형 3은 정체성 성찰기에 있는 전문가로 이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정립하는가에 따라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길을 지속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유형 3은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변화를 위한 외적 활동보다 내적 작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머무름에는 관계 상처를 돌보고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성찰하며 전문가로서 당면한 한계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숙고한다. 이 시기는 타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로 자기 자신

과의 직면을 통해 개별화의 성장통을 겪는다. 상담자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 개인적 삶에서의 외적 내적 어려움들로 인해 상담자로서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와 동기가 저지되거나 방해되는 상태를 '좌절'로 보고 숙련상담자의 좌절 경험 극복과정을 살핀 연구가 있다. 상담자의 좌절은 개인적이고 전문적 영역 모두 관계에서의 상처와 깨짐을 경험하고 전문성에 대한 도전과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무기력감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때 동료와 슈퍼바이저의 도움 및 자기 노력을 통해 극복하며 이후 성장과 발달로 나아가고 있다(김혜미, 오인수, 2016).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또한 개인 내적 작업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비슷하게 겪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이나 교류, 자기 탐색과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오랜 기간을 수련한 전문가 자원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 유형을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을 살펴 결과로부터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에 대한 성장 방향과 단계에 대한 가설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일반 상담자 발달과 유사한 면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사이코드라마 실연 역량을 갖추는데 유형별 발달 수준과 성장의 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을 조력할 수 있는 교육 내용 탐색이나 슈퍼비전 요구 분석과 같은 후속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Q분석된 요인 결과 자체를 후속 연구의 연구 집단 표집으로 연계할 수 있고 또는 Q표본의 진술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경험에 표집 되지 못한 전문가 유형이 있으며, 가설 추론적 방법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문가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사람’을 요인 분석하는 방법론의 특징으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를 유형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발달에 대한 ‘요인’을 밝혀 변인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추론된 가설에 대한 연역적, 귀납적 연구로 확장하여, 전문가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나 특히 발달 정체나 전문가 활동을 포기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집 대상에서 발간하지 못한 전문가 유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 연구와 더불어 척도를 개발하고 변인 간 관계 및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와 상담 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직결된 후속 연구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발달 수준별 수퍼비전 요구 분석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강호 (2017). 사이코드라마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정서조절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0(2), 21-32.
- 고영애 (2002). 심리극 집단상담이 간호학생의 신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희숙, 조성희, 김희숙, 김은영, 이순섭, 이옥진, 성은옥 (2013).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디렉팅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6(2), 1-22.
- 강희숙, 김희숙, 성은옥, 이순섭, 이옥진, 조성희 (2014).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성장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7(1), 1-14.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수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 19-53.
- 김동민 (2018). 예술치료 수퍼바이저 발달과정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탐구*, 4(2), 275-302.
- 김민정, 조화진 (2015). 교육수준, 실무, 수퍼비전 경험과 교육 분석 경험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6(3), 67-84.
- 김상희 (2011). 사이코드라마에서 디렉터의 지향.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2), 1-19.
-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 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26.
- 김주현 (2012). 디렉터와 주인공이 지각하는 사이코드라마 치료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 이지연 (2014). 디렉터가 경험한 주인공의 사이코드라마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7(2), 31-50.
- 김진숙 (2001). 상담자발달모형과 청소년상담자발달연구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9-37.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현수, 원유미 (2000). Q방법론. 서울:교육과학사.
- 김혜경, 이지연 (2016). 사이코드라마가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에 미치는 효과-알코올 의존자 배우자 중심으로.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9(2), 33-55.
- 김혜련 (2003). 심리극 기법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미, 오인수 (2016). 숙련상담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17(5), 159-180.
- 김홍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 6(1), 1-11.
- 김홍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나현미, 정남운 (2016). 상담자의 성인애착,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과 상담 초기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339-369.
- 박수병 (2014).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7(1), 65-78.
- 박수영, 최한나 (2013).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4(5), 2969-2986.
- 소수연 (2012). 슈퍼바이저의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 탐색과 슈퍼비전 수행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진영 (2005). 불안정 고용시대의 경력개발유형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유다솜 (2017). 상담자발달과 역전이, 상담성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상담자 교육 분석 경험 및 태도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8(2), 17-35.
- 이난복 (2011). 심상유도음악치료(GIM)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문희 (2011). 상담자의 심리치료와 전문성 발달. 사회과학연구논총, 25, 27-59.
- 이미선 (2008).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집단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박승민 (2015).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의 자기 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6(1), 1-29.
- 이운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 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257-272.
- 임전옥, 장성숙 (2015).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491-518.
- 임지연, 소혜진 (2017). 음악치료사들의 음악적 학위과정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3(3), 197-222.
- 장세미 (2016). 슈퍼바이저 발달 요소 탐색 및 슈퍼바이저 발달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재홍, 권희경 (2002).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487-509.
- 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

- 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1), 1-29.
- 주혜연 (2003). 여자소녀원생의 자기개념향상을 위한 심리극 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한나 (2005).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 연구*, 6(3), 713-727.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허미경 (2011). 사이코드라마 치료요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재경, 신영주 (2015). 여성상담자의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발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15-639.
- Baakman, P. (2002). Principles of supervision. *ANZPA Journal*, 11(1), 38-47.
- Borders, L. D. (1990). Developmental changes during supervisees' first practicum. *The Clinical Supervisor*, 8(2), 157-167.
- Borders, L. D., & Usher, C. H. (1992). Post-degree supervision: Existing and preferred practic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5), 594-599.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Yale Univ. Press.
- Ekstein, R., & Wallerstein, R. (1972).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psychotherapy (2nd e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llis, M. V. (2001). Harmful Supervision, a Cause for Alarm: Comment on Gray et al. (2001) and Nelson and Friedlander (2001).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01-406.
- Frey, D. H. (1972). Conceptualizing counselling theories: A content analysis of process and goal statement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1(4), 143-250.
- Grant, J., & Schofield, M. J. (2012). Managing difficulties in supervision: supervisors'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528-541.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3), 139-141.
- Huppert, F. D., Bufka, L. F., Barlow, D. H., Gorman, J. M., Shear, M. K., & Woods, S. W. (2001). Therapists, therapist variables,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utcomes in a multicenter trial for panic disorder.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6), 747-755.
-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3-11.
- Leach, M. M., Stoltenberg, C. D., McNeill, B. W., & Eichenfield, G. A. (1997). Self-efficacy and counselor development: Testing the integrated developmental model.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7(2), 115-124.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Moreno, J. L. (1977). *Psychodrama*. New York : Beacon House.
- Scholl, M. B., & Smith-Adcock, S. (2007). Using Psychodrama Techniques to Promote Counselor Identity Development in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2(1), 13-33.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Allyn and Bacon. 유성경, 유정이, 이윤주, 김선경 공역. (2003).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서울: 학지사.
- Skovholt, T. M. (2005). The Cycle of Caring: A Model of Expertise in the Helping Profess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1), 82-93.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 Smith, A., & Koltz, R. L. (2015). Supervision of School Counseling Students: A Focus on Personal Growth, Wellness, and Development. *Journal of School Counseling*, 13(2), 1-34.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ur: Q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oltenberg, C. D. (1981). Approaching supervision for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1), 59-65.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San Francisco, CA, US: Jossey-Bass.
- Tabib, S. L. (2017). *Effective Psychodrama Supervision: A Grounded Theory Study on Senior Supervisors' Perspectives*. Expressive Therapies Dissertations 4. Lesley University.
- Wampold, B. E. (2001).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models, methods, and findings*.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iß, K. (2007). Über-Blicke (Zurück)-gewinnen. Wirkfaktoren in der Supervision. *Zeitschrift für Psychodrama und Soziometrie* 2(6), 185-200. Wiesbaden: VS Verlag.

원 고 접 수 일 : 2019. 01.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4. 22

게 재 결 정 일 : 2019. 05. 30

Psychodramatist Development Types Analysis Applying Q Methodology

Ju Hyun Kim

Jee Y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No theories currently exist about the development of psychodrama specialists, and the limited number of these professionals provides a challenge for the use of traditional quantitative statistical methods. In order to investigate psychodramatist development types a hypothesis inference method, Q method, was employed. First, 32 psychodrama specialists were interviewed. The interviews generated the Q population, which consisted of 338 self-reference statements, which was then reduced to a final 43 Q samples. P samples were composed of 32 specialist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s. Q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QUANL program on the sorting results. The results suggested that psychodrama specialist development can be classified into 5 types: entering period into psychodrama enactment, training period for existential meeting, expansion period of enactment technique, reflection period on identity, and mastering period in self-integration. The features of each type of psychodrama specialist development and a proposed follow-up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dramatist development types, Q methodology